

弘報室 : (02)
6050-3602~5

* 이 자료는 **8/14(水)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8/13(火) 11:00부터**

※ 문의 : 금융세제팀 권혁부 팀장(6050-3891), 김정진 대리(6050-3892)

금융사 65% “저금리시대, 수익성 악화 지속”

- 대한상의 조사 ... 주요업종별로 ‘은행’(77%), ‘증권’(70%), ‘보험’(59%) 순으로 악화
- ‘자금운용처 부족으로 수익성 저하’(55%), ‘수수료 인하 등 가격경쟁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27%) 겪어
- ‘저금리 시대 기준은 3%이하’ 50% ... ‘저금리 시대, 최대 5년 가량 지속될 것’ 40%
- 금융사 위기극복 위해 ‘금융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책’(46%), ‘성장성 강화 지원책’(25%) 마련해야

국내 금융사 10곳 중 7곳이 저금리시대 진입후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금융사 205개사를 대상으로 ‘저금리시대 장기화에 따른 국내 금융사의 대응전략’을 조사한 결과, 저금리시대로의 경영환경 변화가 수익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65.4%가 ‘악화됐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별차이 없다는 답변은 26.3%,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표> 저금리시대 진입 후 업종별 수익성 변화

업종	수익성 악화	별 차이 없음	수익성 개선
전체	65.4%	26.3%	8.3%
은행	77.3%	18.2%	4.5%
증권	70.0%	20.0%	10.0%
보험	56.8%	37.8%	5.4%
자산운용	72.2%	22.2%	5.6%
저축은행	85.4%	12.5%	2.1%
신용카드	100%	0%	0%
리스/할부금융	38.5%	42.3%	19.2%
투자자문	31.6%	47.4%	21.0%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답변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100%)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저축은행’(85.4%), ‘은행’(77.3%), ‘자산운용’(72.2%), ‘증권’(70.0%), ‘보험’(56.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은행권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순이자마진(NIM)은 2010년 232%에서 올해 2분기 1.88%까지 하락했고,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증권업종의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업 전반의 각종 수익지표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금리기조 장기화에 따른 위기요인으로는 '자금운용처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54.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수수료 인하 등 가격경쟁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27.3%), '시장성장성 정체'(13.2%),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강화'(4.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저금리시대 진입후 사업전략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위험 최소화를 위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한다'는 응답이 42.0%였고, '낮은 조달금리를 활용해 자산 및 수익화대전략을 구사한다'는 답변은 30.7%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절감을 한다'(14.1%)거나 '새로운 사업확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13.2%)는 답변이 있었다.

현재 진행중인 주력사업 형태로는 대다수의 기업이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68.3%)고 답한 가운데, '사업다각화나 겸업화를 확대한다'는 의견은 13.2%에 그쳤다. <'지역별·고객별 차별화 강화' 13.7%, '해외시장 진출 확대' 4.9%>

대한상의는 "금융기관들이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외형경쟁을 하기 보다는 핵심사업에 집중해 업무효율을 높이면서 위험 관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응답기업의 절반인 49.8%는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2.5%)가 3% 이하인 경우를 저금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해 우리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2% 이하' 27.8%, '4% 이하' 19.5%, '5% 이하' 2.9%>

기준금리는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 2~3.25%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저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최대 5년 가량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거나 '향후 고금리 시대로의 전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도 각각 24.4%, 23.4%에 달했다.

이같은 저금리시대 장기화에 따른 대응책으로는 '신상품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수익구조 다양화'(64.1%), M&A 등을 통한 '신규 사업분야 진출'(22.1%), '협력형태 다변화'(9.9%), '유통채널 확대'(3.8%) 등을 차례로 답했다.

저금리 시대 미래수익원 확보와 관련한 애로에 대해 응답기업들은 '진입장벽, 취급상품 제한 등

각종 규제(37.1%)를 첫 손에 꼽았고, <‘리스크 관리에 따른 모험기피성향’ 27.3%, ‘사업성 있는 신사업 발굴의 어려움’ 24.9%, ‘자금규모, 전문성 등 내부역량 부족’ 10.9%>, 저금리 시대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마련’(46.3%)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성장성 강화 지원’ 25.4%, ‘금융사 위험흡수능력 제고’ 22.9%, ‘해외 시장 진출 지원’ 5.4%>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앞으로도 저금리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금융사들의 적정이윤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사들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는 한편 수익다변화 및 비용절감 등 이윤 창출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금융당국도 금융사들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규제완화, 선진 인프라 도입 등 창조금융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1. 순이자마진(Net Income Margin)

- 은행이 대출과 여타 이자부자산 운용에서 낸 순익에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을 차감해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 추이(%): 2.32('10) → 2.30('11) → 2.10('12) → 1.88('13.2분기)

2.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 자기자본에 대한 이익의 비율로 (연간 순이익/자기자본) * 100으로 계산
- 기업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 증권업종의 ROE 추이(%): 8.8('09.4~'10.3) → 7.7('10.4~'11.3) → 5.6('11.4~'12.3) → 3.0('12.4~'13.3)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 7/16(화)~7/29(월)
- 조사대상 : 금융사 205개사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투자자문, 저축은행 등)
- 조사방법 : 팩스 및 이메일